



이재용 前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 또 낙하산? 강력반발

### 야당·노조 '보답 인사' 등 비난...갈등 증폭될 듯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전직 임명됐다. 야3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으며 건보공단 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 "인사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알지만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주변에 이 이사장만큼 능력과 소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회를 거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2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17대 총선 낙마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고 이번에는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낙선한 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보답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사전에 이사장을 내정해 놓고 다른 후보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력 반

발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 퇴진운동을 강력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이사장 공모에는 '사전 내정설'이 나돌면서 공모자가 끊기다시피 했다. 건보공단의 모 상무와 대리급 직원 등 공단 내부에서 2명이 응모한 것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내정해 놓고 표면적으로는 공모를 하는 '인사 파행'이 야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직원이 1만명이 넘는데다 한 해 예산이 24조원에 달하는 '매머드 조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 의료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이다. 이 전 장관의 건보공단

관련 경력은 치과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거의 유일하다. 이 신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과 관련된 국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 임명 때는 환경운동 경력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치과 의사 이력을 내세워 전문성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가 보은인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靑 퇴직자 61명, 정부부처·산하기관 재취업"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장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3일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61명이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당내 '낙하산인사조사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96명의 고위 공직자가 퇴직했으며, 이중 140명이 재취업했다"며 "교육계 등 원래 직종으로 돌아간 79명을 제외한 나머지 61명이 정부 부처 등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기관별 재취업 인원을 보면 정부 부처 11명, 정부 산하기관 26명, 민간기업(협회 포함) 24명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는 장관 보좌관이 6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정부 산하기관은 사장 또는 이사장 9명, 감사 7명 등이었다"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상당수가 협회부회장이나 상무,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출신 고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낙하산 인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성실치 일해 온 대다수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낙하산 인사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탈북자 175명 태국 이민국에 연행돼

### 泰 이민국장 "北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

태국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 175명이 22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이하 현지시간)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태국 방콕의 하이팡 경찰서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을 급습, 이곳에 거거하면서 제 3국행을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175명을 경찰차 등 버스 3대에 태워 이민국 수용소로 강제 연행했다. 탈북자들은 3년 전부터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한인교회는 그동안 교회 근처의 '무반'이라는 방 10개짜리 일반주택을 임대해 이들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인근 태국 주민들의 신고로 이날 경찰이 급습했다. 탈북자는 부녀자가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어린이와 임신부와 장애인, 심장병 환자 등이 끼여 있어 의료진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이민국에 따르면 이날 연행된 탈북자 가운데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발행한 여

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이날 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이민국으로 연행되는 바람에 한국행이 좌절됐다. 수완 톰통시콜 태국 이민국 국장은 "연행된 탈북자 모두를 불법 입국죄로 기소한 뒤 추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 모두 제 3국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며 태국을 떠날 때까지 보호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은 이날 이민국으로 연행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고위 이민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3일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잘 해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 태국에서 제 3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는 260명 선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이 탈북자들의 제 3국행을 위한 중간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혁=연합뉴스



태국 경찰이 22일 밤 주태국 한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2층 짜리 주택을 급습, 이곳에 거거하면서 제 3국행을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175명을 이민국 수용소로 강제 연행하고 있다. /영국로이터=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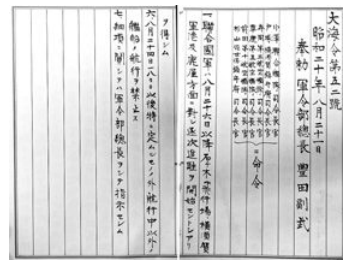
# "日군부 고의 폭침"



우키시마마루호

### 김문길교수, 사실 입증 결정적 단서 '일본군 비밀문서' 발견

광복의 기쁨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던 조선인 5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군함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사건을 일본 군부가 고의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일본군 비밀문서가 발견됐다. 부산의국어대 김문길 교수(일본사·한일관계사 전공)는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21일 해군지휘관들에게 지시한 명령서(천황칙어)를 기록한 대해령(大海令) 52호 6항에서 8월 24일 오후 6시 이후 정찰임무 이외에 항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비밀문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연합군이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일본 천황으로 하여금 각군 지휘관들에게 대해령을 내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선인들을 귀국시키지 말라는 천황의 명령을 기록한 것으로 우키시마마루가 고의로 침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 해군사령부가 천황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을 태운 우키시마마루를 출발시킨 것은

계획적이라는 것이다. 우키시마마루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3천735명이 광복을 맞아 귀국하기 위해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를 타고 거인중 이 배가 교토 근처 마이스루만에서 폭발, 침몰하면서 54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우유족회 이금주(87) 전 회장 등은 지난 1992년 이들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는 등 12년동안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였으나 2004년 11월 30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美상원에 한국수출 개방압박 법안 제출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 협정과 무관하게, 국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외국 수입차 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

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이들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 법안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러한 압박을 하기로 했으며, 한국에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비관세 장벽이 있고 한국이 1998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별소비세율 30% 감축토록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미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 건강기능식품관리사

10월 22일 시험확정, 초창기시행으로 취득쉬워

**● 건강기능식품관리사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요건**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  
2.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과 2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3.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과 2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시험**  
1. 시험명: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시험  
2. 시험일: 10월 22일  
3.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강식품 대리점모집**

대한민국 유일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한국바이오**

02-757-2000 02-757-2001

02-757-2002 02-757-2003

##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몰입현장으로 www.hanboGAGU.com

2000년 이후 최고의 사무가구 전문기업

**YANCH**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 의자 전문생산업체